

탑의 진화

⑬ 보로부두르(Borobudur) 불탑

불교관 완벽하게 표현한 '불가사의'

본 글의 제목은 '탑의 진화'이다. '진화'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용어로 일반적인 의미는 생물이 일정한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도태되어 점차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하등한 것으로부터 고등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불탑의 경우는 시대에 따라 반드시 발전되어 진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 간소화 또는 상징화되어 퇴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불탑의 역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교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불탑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기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였다는 역사적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이 시기에 조성된 황룡사9층탑을 비롯하여 익산 미륵사지석탑, 불국사 쌍탑, 화엄사 사자사 석탑 등의 건축적, 예술적 수준을 오늘날 재현하기 힘든 것처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불탑 조성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로 꼽는 것이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불탑(사진1)이 대표적이다. 이 불탑이 있는 인도네시아는 13,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5세기경에 인도와 교류하며, 불교문화도 수용하였다. 이 불탑은 중부 족(육)자카라에서 약 42km 떨어진 보로부두르 마을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불국사와 석굴암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인 775년경에 힌두교를 숭상하던 왕실의 지원으로 취바신을 위한 사원으로 시작 하였으나, 기단 부분만 만들고 중단 된 것을 불교를 신봉하던 사일렌드라왕조의 사마라둥가(Samaratungga)왕이 790년부터 835년까지 불사를 계속하여 마침내 거대한 불탑을 탄생시켰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에 모든 불교국가에서는 불탑을 조성하였지만 8세기에 조성된 이 불탑의 예술적, 건축적, 신앙적 의미를 능가할 불탑은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네덜란드 언어학자 데 카스파리스(J.G. de Casparis)에 의하면, 탑의 원래 이름은 '다사부후미 삼바하라 불다라'(DasaBhumi Sambhara Budhara)로 '다사부후미'는 10단계로 십층(十層), 십지(十地), 십지품(十地品)을 의미하며, '삼바하라'는 언덕을, '불다라'는 불탑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언덕위의 10층불탑'이란 뜻이다. 그런데 '다사부후미삼바하라 불다라'에서 뒤의 '바하라불다라'(Bhara Budhara)를 인도네시아의 자바(JAWA)어 표기법으로 'a'를 'o'로 바꾸어 '보로부두르'(Borobudur)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이 불탑은 높이 40m의 10층탑으로, 각 층의 벽면에는 양각으로 불교관련 도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길이는 60km에 달하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 조각으로 탁월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이 불탑의 구조적 특징은 7층까지는 정사각형이고 8층부터 10층까지는 원형을 이루는 이중구조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10층이 3단계의 구분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10층은 '십지'(Dasabhumi)를 의미하는데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엄경의 10지품의 수행과정을 의미하며, 3단계는 불교의 세계관인 삼계(三界) 즉,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표현(사진2)하고 있는 것이다.

7층까지는 사각형의 계단식피라미드모양 한 번이 123m이며, 탑돌이를 할 수 있는 요로가 있으며, 8, 9, 10층은 원형으로 수미산을 상징하는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의 만다라를 표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7대불가사의 중 하나

높이40m 무게350만t

25cm×15cm 돌 200만개 축조

3000개 벽면 조각 상상초월

상상초월의 불탑신앙 있어 가능

축조과정 현대인들 짐작 못해

비교대상 찾아보기 힘들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만다라'

내부에서 시작 외부로 축조 추측

석굴암 천장구조와 비슷한 공법

수세기 동안 흠 속에 묻혀 있어

1814년 발견 유네스코 지원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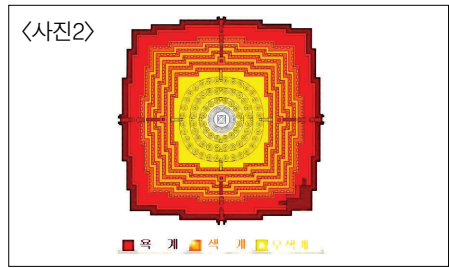
이처럼 '보로부두르' 불탑은 불교의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것이며, 앞서 말했듯이 각 층의 조각 내용은 한질서의 대장경을 방불케 하듯 방대한 내용(사진3)이다.

또한 사방 회랑의 꼭대기와 중앙에 모셔진 불상은 전형적인 밀교의 오불(五佛)을 봉안한 모습이며, 각 출입구의 양쪽에는 모두 64개의 사자상(사진4)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불탑의 재료는 가로 25cm, 세로 15cm, 폭 10cm의 안산암이라는 돌 약 200만개로 되어있다. 이 200만개의 돌에 흠을 파서 서로 맞물리게 하여 내부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이다.

조성방법에는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공통점은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내



보로부두르 불탑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불탑으로 775년 경에 조성됐다. 힌두교를 숭상하던 왕실의 지원으로 취바신을 위한 사원으로 시작 했으나, 기단 부분만 만들고 중단 된 것을 불교를 신봉하던 사일렌드라왕조의 사마라둥가(Samaratungga)왕이 완성했다.



불탑은 10층, 3단계로 구분된다. 10층은 화엄경의 '십지'를, 3단계는 삼계(三界)를 표현했다.



보로부두르 불탑 각 층의 조각 내용은 한 질서의 대장경을 방불케 하는 방대하다.



각 출입구의 양쪽에는 모두 64개의 사자상.



불탑은 창살무늬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 내부의 불상을 진전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 불탑의 구조에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만다라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축조되어 왔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우리나라 석굴암 조성의 순서로 예견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크기로 하여 돌과 돌 사이에 흠을 파서 위 부분의 돌 아래 중앙에 튀어나온 돌출형태에 맞게끔 하여 일단 조립이 되면 부분적으로 해체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석굴암의 천장구조 결구 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특히, 각 회랑의 바닥 돌은 다양한 형태로 서로가 맞물려 [사진3 바닥 참조] 있으므로 지진 등의 외부 충격에도 흔들림을 최소화 시킨 고도로 발달 된 과학의 산물인 것이다.

지금부터 대략 1,200년 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불탑을 조성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은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짐작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약 350만 톤에 이르는 탑의 무게를 지반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며, 약 3,000개에 달하는 벽면의 조각은 누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많은 돌은 어디서 옮겨 왔는가? 등에 대하여는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냥 불가사의로 단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탑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 보로부두르 불탑을 능가하여 건축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더욱 진화된 불탑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양각으로 표현된 부조물의 내용들은 대장경 전체의 내용을 방불케 하므로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이 탑의 구조에서 불교의 세계관인 삼계의 표현과 모셔진 불상의 특징 및 만다라의 상징적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0층탑의 구조로 1, 2층에 해당되는 욕계(欲界)는 중생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욕도(지욕,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160개의 조각으로 표현 하였다. 한 개의 부조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뜻을 표현했으며, 우측은 인(仁)을, 좌측은 과(果)를 표현하여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을 의미하고 있다.

3층부터 6층까지는 욕심은 어느 정도 극복하였으나 물질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는 색계(色界)에 해당 되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의 생애를 8상으로 구분하는 8상도를 비롯하여 본생담과 화엄경의 임법계품 등의 내용이 조각으로 새겨져 오늘날 사찰벽화

의 근원으로 조심스럽게 주장해 본다.

욕계와 색계에 새겨진 부조는 총 2,672매로 내용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짐작케 하며, 7층부터 9층에 이르는 무색계(無色界)는 욕망과 물질을 완전히 극복한 정신적 세계로 작은 불현탑 안에는 설법인을 한 석가모니불이 모셔져 있다. 이 불상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전법륜인의 비로자나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7층에 32, 8층에 24, 9층에 16, 모두 72기의 불현탑안에 불상을 모셨으며, 중앙의 대탑을 합하여 73기의 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불현탑은 마치 창살무늬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내부의 불상을 진전할 수 있다(사진5). 이 불상들은 방향에 따라 수인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인에 따라 불상의 존명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미술사학계의 견해이다. 수인이 항마촉지인이면 석가모니불, 지권인은 비로자나불 등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 불탑에 모셔진 불상들은 수인에 따라 존명을 정하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남쪽에는 여원인(與願印), 서쪽은 선정인(禪定印), 북쪽은 시무의인(施

無畏印)의 수인을 각각 결하고 있는 불상들은 방향에 따라 수인의 모습만 다를 뿐 상호호를 비롯하여 법의 및 결가부좌의 자세 등이 모두가 한결같기 때문이다.

이 불탑의 구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만다라(曼荼羅)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다라의 사전적 의미는 원(圓)을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주를 상징하며, 2종류가 있어 우주의 2가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에서 여럿을 향해 움직이는 태장계(胎藏界)와 여럿에서 한 곳을 향해 움직이는 금강계(金剛界)가 그것이다. 만다라는 종이나 천에 새겨져 그리거나, 찰가루나 모래를 이용하지만 청동이나 돌을 사용하기도 한다. 돌을 사용한 금강계만다라의 대표적인 예가 보로부두르 불탑(사진6)이다. 구조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그곳에서 행하는 탑돌이도 만다라 중심에 접근하는 수행의식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 다보탑이 만다라를 상징한 대표적인 탑이라 할 수 있다.

보로부두르 불탑은 인도 산지불탑의 경우처럼 입구에 토라나(torana)라는 출입문이다. 이 토라나의 정상에는 사자를 닮은 까르티무까(Kartimuka)라는 손이 세 개인 상상의 동물이 좌우에 두 마리의 뱀을 쥐고 있다. 좌우 아랫부분에는 각각 해수(海獸)가 입을 크게 벌린 채 위로 향하고 있다. '까르티무까'는 하늘, '마까'라는 땅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불탑은 950년경에 왕조의 중심이 자바의 동부로 옮겨가게 되는 바람에 밀림 속에 방치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인근에 있던 메라피 화산이 분출하여 흠속에 묻혀 수세기 동안 잊고 있었다가 다시 역사에 등장한 것은 1814년이었다. 싱가포르를 건국한 것으로 유명한 당시 자바의 통치자였던 영국인 토마스 래플스(Sir Thomas Stamford Bingley Raffles)경이 보로부두르를 재발견하고 나서, 다시 자바를 점령하게 된 네덜란드인들이 주도하여 복원 공사를 하였다. 복원 불사 중 수차례의 지진과 화산 폭발로 지연되었지만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오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로부두르 불탑은 크기의 위용과 구조의 뛰어난 예술적 우수성은 물론, 불교의 교리를 시공간에 완벽하게 표현하였다는 것은 지금껏 불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호 부터는 중국의 불탑을 중심으로 구조상의 변천과 불탑신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우빈보

경전사경, 금지 관음도 액자, 양초 할인판매, 동진기획·붓다쇼핑